

송원산업, 친환경 첨가제 배합기술 개발

송원산업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첨가제 배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.

송원산업(대표 박종호)은 열가소성수지를 가공할 때 고온 작업에 적합하고 변색이 적으며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첨가제 배합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.

컴파운드 및 몰딩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내구성 및 수명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,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페놀(Phenol)계, 황화에스테르 산화방지제 조합에 바탕을 둔 혼합 첨가제제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특히, 충전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PP(Polypropylene) 사출 성형물에 대해서는 물성, 성능 및 제품 수명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, 건강 및 안전 등 관점에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배기물의 감소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.

Klaus Keck 송원산업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이사는 “새로운 첨가제 배합기술은 50% 이상의 성능향상 효과가 있으며, 첨가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변색을 방지하는 동시에 배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〈화학저널 2010/11/29〉